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70호

I 딸기 수출업계 건의·애로사항 청취

II 한-호주 식물검역전문가 회의 개최

III 딸기 신품종 수확 행사 개최

IV 기관 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추진



농수산물 수출 Zoom In 70호 2020. 1. 31(금)

‘19.12.31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95.4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8.3% 1,382백만불	  0.1% 5,645백만불	  5.8% 2,511백만불
+ 인삼류, 김치, 배 - 파프리카, 유자차,	+ 음료, 라면, 커피조제품 - 궤련, 맥주, 비스킷	+ 김, 굴, 참치 - 참치, 전복, 고등어

국가별

* 쌀 무상원조 실적('18(20.0백만불), '19(2.0))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미국 ▶ 대형유통업체 연계 인삼류 판촉(~3.15) 1,171백만불(8.5%)	 김(19%), 음료(5%)  비스킷(△12%), 배(△4%)
  중국 1,629백만불(8.5%)	 김(34%),)라면(33%)  유자차(△12%), 조제분유(△7%)
  일본 2,159백만불(3.6%)	 김(12%), 궤련(3%)  참치(△12%), 파프리카(△1%)
  ASEAN ▶ 대형마트 연계 쌀가공품 등 판촉(계속) ▶ 태국 대형유통업체 연계 딸기 판촉(계속) 1,813백만불(3.3%)	 딸기(27%), 궤련(8%)  참치(△14%), 커피조제품(△3%)
 포도(44%), 굴(15%)  궤련(△7%), 인삼류(△1%) ▶ 대형마트 연계 신선농산물 판촉(계속)	 홍콩 413백만불(△2.6%)
 라면(18%), 새송이버섯(8%)  굴(△8%), 참치(△2%)	 EU 560백만불(△4.5%)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019년



- 김치

- ◇ 건강 중심 트렌드로 인한 수요 증가 및 대형유통업체 입점 확대 등으로 최초 천만불 기록

104,986천불(7.7%)

- ▶ 주요 수출국 : 일본(55,178천불, △1.6%), 미국(14,802, 65.0) 홍콩(4,953, 10.3), 대만(4,781, △6.2), 호주(3,485, 12.0)

- 라면

-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취득 등으로 작년에 이어 4억불 수출 실적 기록

- ▶ 주요 수출국 : 중국(124,434천불, 33.4%↑), 미국(53,542, 6.3), 일본(33,745, 6.5), 인도네시아(21,894, 20.6), 대만(19,924, △1.3), 호주(19,160, 1.8)



467,064천불(13.1%)



- 김

- ◇ 김 스낵 인기로 대형유통업체, 유기농 전문마켓 등 입점 확대

486,090천불(6.3%)

- ▶ 주요 수출국 : 일본(115,578천불, 10.4%↑), 중국(98,095, 40.0), 미국(92,112, 15.2), 태국(50,095, △36.6)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

식물검역 이슈



딸기 수출업계 건의·애로사항 청취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19.12.17.(화) 진주에서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 '딸기 수출확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딸기를 한국 대표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종합 대책 마련 추진 방향을 공유하였다.

농식품부의 종합 대책인 생산, 유통, 가공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 방안으로 생산자 및 수출 업계가 희망하는 필리핀 등 신시장 개척의 요구에 발맞추어 신남방, 신북방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해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호주 식물검역전문가 회의 개최

검역본부는 '19.12.11~12.13(3일간) 호주 캔버라에서 국산 참외·멜론, 딸기(소독처리 면제)와 배(수출지역 '진주' 추가) 등 수출확대를 위해 양국 식물검역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국산 딸기에 대해 호주측이 우려하는 벚초파리에 대한 연구논문을 제공하는 등 검역 요건 완화(소독 처리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산 참외·멜론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20.3월에 호주 전문가를 초청하기로 하였다. 검역본부는 현재 배 호주 수출단지인 나주·상주·하동 이외에 '진주' 지역 추가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과수화상병의 국내 발생 상황 및 박멸 활동을 호주측에 지속적으로 통보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출 요건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담당 식물검역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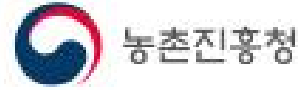


검역본부는 '19.12.19~20 양일간 제주에서 수출담당 식물 검역관 55명을 대상으로 최근 변경된 수출검역요건 중심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매년 2~3월에 개최 하던 교육을 참다래 등 새로운 품목 검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선 검역관들이 농가들 대상으로 '20.1~2월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특히 '20년에 새로이 시작되는 파프리카 중국 수출, 참다래 대만 수출 관련 신규 검역요건과 최근 국가별 변경된 검역요건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20년에도 수출검역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

농진청 이슈



딸기 신제품 수확 행사 개최

농촌진흥청은 딸기 신제품 보급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해 신제품 수확 행사를 지난달에 개최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제품 아리향, 미소향, 대왕 등 수확기 품종 고유 특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아리향’은 기존 재배 품종보다 크기가 50% 이상 크고, 28%가량 단단해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 맛 또한 단맛(당도 10.4°Bx), 신맛(산도 0.61%)이 적당해 다른 품종과 차별되어, 국내 소비뿐 아니라 큰 딸기의 특성을 살려 날개 포장 형태로 베트남 수출을 준비 중이다.

‘미소향’은 겨울 재배용 품종으로 과실 색이 붉고 단단해 유제품 가공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대왕’은 당도(11.1°Bx)가 높고, 겉모양이 우수하며 경도가 강해 수출에 적합하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농가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새 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어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아리향-달걀과 크기 비교 >



< 미소향 >



< 대왕 >

기관 합동「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추진

농촌진흥청의 기관 합동(농식품부+농진청+검역본부+aT)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은 수출 농산물의 생산부터 해외시장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으로 고품질·안전 수출상품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에는 수출 경영체(단지, 법인 등) 기술수준 조사·분석을 통한 작물 생육시기별 전문가(기관합동) 맞춤형 수시 컨설팅을 20회 실시한다. 또한 대만·일본 수출농산물 ID농가 안전성 의무교육을 청으로 일원화하여 수출농산물 안전성 교육 서비스를 지역순회로 16회 실시한다.

그리고 수출유망 단지에 대한 집중컨설팅도 10개소에서 2020년에는 15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이들 단지의 수출량 확대를 위해 토론회와 실습을 통한 현장 중심 컨설팅으로 체감성과를 증대시킬 것이며, 이러한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은 전남 해남(2월)을 시작으로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 농진청 이슈 문의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